

2022 Februar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월 동향

전월 미 연준의사록의 3중 긴축 시사와 대내적 국내경제 성장경로 유지 등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지정학적 요인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상단

대선 관련 추경 이슈 속에 연준의 매파적 12월 의사록 공개 후 국내외 금리는 전반적 상승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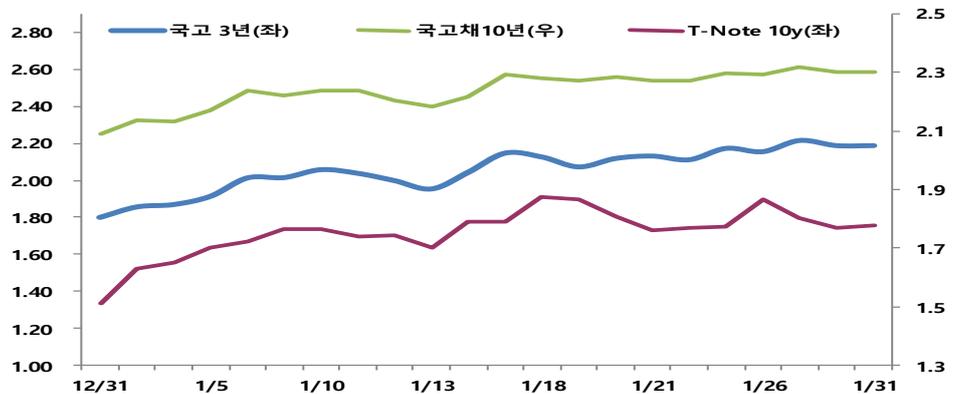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에서 매파적 스탠스, 일본 물가, 성장 전망 상향 등이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운 점 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 견인하여 국고채 금리 상승 견인

대내적 추경 이슈와 대외적 연준 매파 성향의 금리 상승 요인 속에 중국 금리인하,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이 상충하며 국고채금리 방향성에 영향

- 1월 초, 대선 관련 추경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반영으로 상승 출발 후, 12월 연준의사록의 상당한 매파적 성향 시사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추세 지속
 - 1월 초, 대선 관련한 추경 이슈 영향으로 국고채 시장 매수심리가 약화되며 금리 상승 출발
 - 이어 정부와 국회의 본격 추경 협의 진행 소식이 국고채 금리 중단기 구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연준 12월 의사록의 3중 긴축 시사에 따른 매파적 스탠스 강화 등이 미 국채금리 상승세를 견인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이에 연동하며 상승 추세 이어지는 양상
- 중반, 파월 의장 인준 청문회에서 매파 성향, 한은의 연이은 세번째 기준금리 인상 등이 상승 견인한 가운데, BOI의 성장 전망 상향이 미 국채금리 상승 확대에 기여한 영향 반영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 중반, 연준 의장,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에서 상당한 매파적 성향 언급 속에 한은 세번째 금리 인상 결정과 국내 예상 성장 경로 유지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주요하게 견인
 - 여기에 대외적 BOI의 물가와 성장 전망 상향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가 미 국채금리와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 나타남
- 후반, 대내적 추경 이슈, 1월 FOMC의 매파적 긴축 시사 등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요인과 중국 금리 인하 영향이 상단 소폭 제한한 흐름 속 마감
 - 후반, 대내적 대선관련 추경 이슈와 1월 FOMC의 상당한 매파 성향 등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의 주요 영향을 미친 형국
 - 그러나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한 영향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금리 상승을 제한한 가운데 설 연휴전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을 찾는 분위기 등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하며 소폭 하락 마감

1월 평균
국고채(3년): 2.07%
T-Note(10년): 1.77%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2월 전망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과 FOMC 영향이 금리 상단 높일 요인이나 연준 긴축 정보의 상당 부분 선반영, 국내 1월 무역 적자의 부정적 효과 속 지정학적 요인 등은 상단 제한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05 ^(F)	2.15 ^(F)	2.25 ^(F)	2.30 ^(F)

연초 미 긴축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오미크론 변이의 심상찮은 확산세가 고비 위축의 주요 핵심이 되면서 국내 성장 모멘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하에 연준 긴축 우려감 다소 이어지며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치겠지만, 정보의 일부 반영에 따른 금융시장 리밸런싱 해소 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완화 가능성 등이 금리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2월 국고채(3Y) 금리는 2.15%~2.30% 예상

-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성장에 대한 경로는 유지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2만을 넘는 상황 지속과, 연 초반 미 긴축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시장 밸류에이션 하락 등으로부터 소비 위축이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이 금리 상단을 제한할 가운데 높은 변동성 추세 지속이 예상
 - 1월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올해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미 긴축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오미크론 변이의 심상찮은 확산세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큰 폭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는 측면은 경제 회복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를 통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월 FOMC 매파 성향의 상당부분 지속에 따라 그 영향이 다소 반영되었다는 점과 연초 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민간소비의 위축을 통해 미국 경기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금리 상승세를 일부 제한할 전망
 - 최근 국제유가가 7년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 등 주요 국가에서의 인플레이션 지속 현상은 공급망 병목이라는 원인의 제거전까지 당분간 이어지며 주요 중앙은행 긴축 기대 속에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에 탄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연준 3중 긴축 정보의 영향이 상당분 반영되었다는 측면과 미국내 오미크론 확산세, 초반 뉴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미 성장 경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상존 등이 큰 폭의 미 금리 상승세를 제한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상단도 제한 받을 전망
- 추경 확대 이슈에 따른 수급 부담 요인에도 1월 사상 최대 수출 규모 속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은 금리 상단을 제한할 전망
 - 대내적 대선 관련 추경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 확대 가능성은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판단
 - 그러나 국내 1월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가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며 코로나 상황과 맞물린 내수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경기 모멘텀 불확실성 확대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대상으로서의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3%대에 따른 한은 금리인상 기대 강화 · 대선 관련 추경 확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확산 폭증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속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우려 ·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월 동향

연준의 매파적 양적 긴축 가능성 속에 시장의 3월 50bp 금리인상 전망 등의 반영과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하며 1,200원 상향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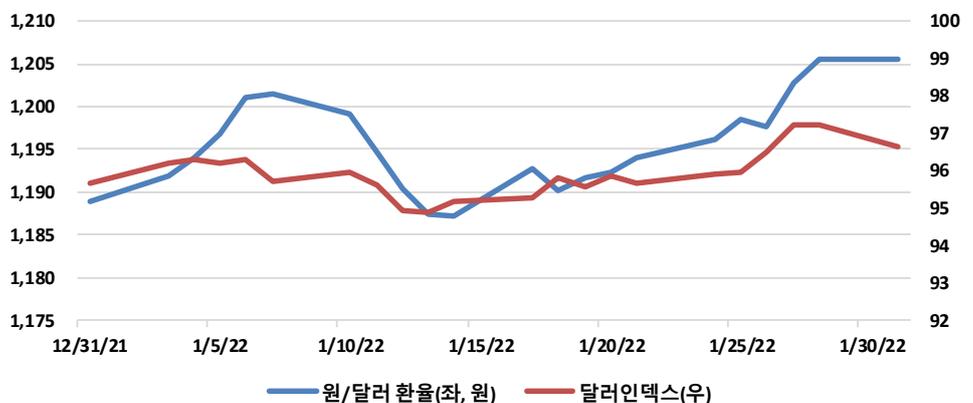
중국 헝다 파산 리스크, 연준 12월 의사록의 3중 긴축 시사 등이 달러 강세 견인

연준의장의 인준 청문회에서 긴축 속도조절론, 국내 대형 IPO이슈가 완화강세 견인하다 FOMC 경계감 강화 등으로 상승 전환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1월 FOMC 영향 속에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상승 흐름 유지한 가운데 연휴 관련 수출 달러 매도 등이 상단을 소폭 제한하는 흐름 속 마감

- 월초, 중국 헝다궈 거래정지 이슈에 따른 아시아 금융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출발 후, 연준의 12월 의사록에서의 3중 긴축 움직임 시사 등으로 환율은 1,200원 상향 흐름 나타냄
 - 월초, 중국 헝다 그룹 거래정지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환율 상승 출발
 - 이어, 연준의 12월 의사록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언급되며 3중 긴축의 매파적 영향 반영되는 가운데 환율은 1,200원 상향 흐름을 보임
- 월 중반, 연준 의장의 긴축 속도 조절 언급, 국내 대형 IPO 수요 등에 따른 외국인 원화 수요 우위가 상승세를 일부 제한 했으나, 시장의 50bp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연준 의장의 인준 청문회에서 긴축 속도조절 언급, 시장 예상 부합한 미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국내 대형 IPO 이슈에 따른 원화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압력의 환율 추세를 일부 되돌림하는 양상
 - 이후, BOJ의 완화적 통화기조 결정에 따른 엔 약세가 달러 강세 견인하는 가운데 FOMC 경계감과 금리인상 50bp 가능성 대두 등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 전환 양상을 나타냄
- 후반, 1월 FOMC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예상 부합에도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매의 발톱을 드러냄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속에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요인도 위험회피 강화를 견인하며 상승 흐름 마감
 - 후반, 1월 FOMC에서 3월 금리인상 부분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양적 긴축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매파 성향을 드러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는 양상
 - 이어,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요인도 위험회피 강화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외자 유출 확대 등으로 환율은 1,205원대까지 상승 흐름 보이며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지수 추이



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95.7
1월말 달러/원 환율 : 1,205.5

2월 전망

연준 긴축 강화 정보의 점진적 반영 속 유럽 중앙은행들 긴축 행보가 달러 강세 제한하겠지만, 국내 수출 모멘텀 약화가 신인도 저하를 통해 원화 약세 견인할 전망에 따라 환율은 좁은 범위 등락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195 ^(F)	1,170 ^(F)	1,185 ^(F)	1,195 ^(F)

1월 FOMC의 영향이 2월 중에도 다소 이어지겠으나, 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 속에 정보의 선반영 등에 따른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며 달러 강세 제한될 여지 배제할 수 없을 듯

중국 올림픽 기간 중 미-중, 미-러간 첨예한 대립 가능성 속에 ECB 등의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는 달러 강세 제한 요인

2월 달러/원 환율
1,195 ~ 1,210원 변동 예상

- 1월 FOMC의 긴축 영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당분간 달러 강세 견인 하겠으나, 3월 금리인상 이전 상당 부분 인플레이 압력 완화 가능성 속에 정보의 선반영과 이런 영향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 탐색 가능성 등이 강달러 기조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
 - FOMC의 긴축 기조,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다소간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보이지만, 연준 금리인상 이전 정보의 선반영 등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의 소폭 완화 조짐 등은 강달러 기조 다소 제한할 전망
 - 또한,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미 경제 하방 리스크 부각 상존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방향성 탐색이 다소간 변동성 국면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3월 FOMC전 강달러 흐름 제한 요인으로 판단
- 중국 동계 올림픽 기간 중 미-중 갈등 첨예화 예상 가능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이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은 해당 시점에 강달러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 반면, 미국 외 주요 선진국가 중앙은행들 긴축 기조는 달러 강세 제한하며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임
 - 중국 동계 올림픽 개최와 함께 미-중간 갈등 첨예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 가능성이 해당 우려 시점에 달러 강세 견인하며 환율 상승 견인 요인으로 예상
 - 반면, 유럽 주요 지역의 인플레이 강화에 따른 ECB의 매파 기조, 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인상 등이 달러 강세를 제한할 가능성은 원화의 제한적 강세 흐름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의 매파적 선택에도 오미크론 확산세 강화 속에 국내 무역수지 연속 2개월 적자 이슈가 국내 성장 경로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원화 약세 견인에 영향 미칠 전망
 - 1월 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 고려하는 한은 매파 성장에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은 국내 민간 소비 위축을 통해 성장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1월 국내 수출이 사상 최대에도 외부요인에 의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오미크론 영향과 함께 대외 신인도 저하를 통해 외자 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원화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중, 미-러 간 동계올림픽 전후 첨예한 갈등 가능성 국내 오미크론 확산세 폭증 무역수지 적자 2개월 연속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FOMC 긴축 영향의 점진적 반영 ECB 등 주요 유럽 중앙은행 긴축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BOJ의 완화적 통화 스탠스가 엔화 약세 견인할 가운데 연준 긴축 정보 선반영에 따른 제한적 금리 상승이 약세를 다소 제한할 전망. 엔/원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상존에도 국내 수출 개선세 속 수급 우위 등으로 제한적 등락 예상되면서 하락 예상

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4.8
1월 엔/원 평균환율 : 1,041.1

2월 엔/원 예상범위 : 1,030~1,050

- (동향) 미 인플레이 우려 속 국내금리 상승에 따른 대내 금리차 확대 영향 속에 엔 약세 출발. 중반 들어 미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미 금리 하락에 연동된 엔화 강세 흐름을 보였으나, BOJ의 완화적 기조 유지 전망에 재차 약세 흐름. 후반 들어, 우크라이나궤 리스크 고조, 연준의 강한 긴축 시그널 등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움직임에 전반적인 강세 속 마감. 엔/원 환율은 매파적 연준 영향, 우크라이나 요인 등이 원화의 약세 흐름을 견인하며 상승
- (엔/원 전망) 최근 엔화 방향성에 키가 되는 미 금리 수준은 연준 조기 긴축 가능성의 상당분 선반영 가능성 등으로 추가 미-일 금리차 확대보다 현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엔화 약세 다소 제한 전망. 다만 BOJ의 완화 기조가 엔 약세를 자극할 가운데 원화의 제한적 등락 영향에 따라 엔/원 환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미 연준의 3중 긴축에 대한 정보의 선반영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일 경우 미-일 금리차 확대를 통한 엔화 약세는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일본내 코로나 확산 상황 속 민간 소비 침체에 선제적 대응하는 BOJ의 통화 완화 지속 시사 영향이 엔 약세를 이어가게 할 전망 속에 엔/원 환율은 원화의 달러 강세에 대한 제한적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날 전망에 따라 하락 추세 보일 것으로 예상

유로/원 전망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 속에 ECB의 예정된 PEPP 종료와 조기 긴축 의지 등 매파적 기조가 주요하게 유로 강세 견인할 전망. 유로/원은 제한적 원화의 등락 전망으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이 예상

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17
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53.3

2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60~1,975

- (동향) 연준 12월 의사록 3중 긴축 시사에 따른 달러 강세로 유로 약세 출발. 이어 유로존 인플레이션 강화에 강세 전환. 중반, 미 인플레이션 영향 속 등락 흐름 보이다 우크라이나 요인에 약세 전환 후 미 금리 급등과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경계 영향 반영. 이어 후반, FOMC의 매파적 결과 반영되며 2020年來 최저치로 약세 보이며 마감. 유로/원 환율은 FOMC 결과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 견인하면서 하락 추세 나타난 영국
- (유로/원 전망) 연준 긴축 정보의 선반영 가능성 속에 유로와 영국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2월 ECB 통화정책회의의 매파적 스탠스와 BOE의 연속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유로 강세 견인할 전망. 다만 오미크론 급증세가 장기화하는 점은 유로 강세 제한할 주 요인으로 판단
 - 인플레이션 평가를 통해 매파 성향을 보인 ECB 스탠스와 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인상 등 매파적 기조가 유로화의 주 강세 요인으로 판단. 여기에는 연준의 긴축 정보 선반영을 고려하면 보다 강세 정도가 클 전망. 유로/원 환율은 유로화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 제한 예상 속 큰 폭 상승세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휴장, RBA 통화정책회의	2 휴장(설날 연휴)	3 ECB, BOE 통화정책회의	4	5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지, ()안은 이전지		한 1월 수출/수입(18.3%/37.4%, YoY) 1월 무역수지(-\$586M) 유 1월 Markit PMI 제조업(59) 12월 실업률(7.2%) 일 1월 자본 은행 PMI 제조업[F](54.6) 호 2월 RBA 기준금리(0.10%) Fed's Daly Speaks at Reuters Live Event	미 12월 건설지출(0.4%, MoM) 1월 ISM 제조업지수(58.7)/ISM 고용(54.2) 1월 ISM New Orders(60.4) 1월 ISM 구매물가지수(68.2) 유 1월 CPI(0.4% MoM, 2.6% YoY)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	한 1월 Markit PMI 제조업(51.9) 1월 외환보유고(\$463.12b) 유 1월 Markit PMI 종합(52.4)/서비스(51.2) 12월 PPI(1.8% MoM, 23.7% YoY) 2월 ECB 단기수신금리(-0.5%) 2월 ECB 마진 대출 퍼실리티(0.25%) 일 1월 자본은행 PMI 서비스(46.6)/종합(48.8) 영 2월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 BOE Governor Bailey press conference	한 1월 CPI(0.2% MoM, 3.7% YoY) 미 1월 ISM 서비스(62) 12월 제조업수주(0.8%) / 내구재주문 1월 시간당 평균 임금(0.6% MoM, 4.7% YoY) 1월 경제활동 참가율(61.9%) 1월 제조업 임금변동(26K) 1월 실업률(7.3%) 유 12월 소매판매(1.0% MoM, 7.8% YoY) 독 12월 공장수주(3.7% MoM, 1.3% YoY)	
6	7	8	9	10	11	12
	유 2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14.9) 중 1월 Caixin 종합 PMI(53)/서비스 PMI(53.1) 독 12월 산업생산(-0.2% MoM, -2.4% YoY)	미 12월 소비자신용지수(\$39.991b) 일 12월 실질 임금총액(-1.6%, YoY) 12월 가계 소비지출(-1.3%, YoY)	중 1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130.0b) 1월 통화공급 M0(7.7%, YoY) 1월 통화공급 M1(3.5%, YoY) 1월 통화공급 M2(9.0%, YoY) 일 1월 통화량 M2(3.7%, YoY), M3(3.4%, YoY) 1월 공작기계 수주	한 12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12월 CPI(0.5% MoM, 7.0% YoY) 1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2.4%, YoY) 1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2.3%, YoY) 일 1월 PPI(-0.2% MoM, 8.5% YoY)	독 1월 도매물가지수(0.2% MoM, 16.1% YoY)	
13	14	15	16	17	18	19
유 12월 산업생산(2.3% MoM, -1.5% YoY) 독 2월 ZEW 서베이 예상(51.7)		한 1월 수출물가지수(-1.0% MoM, 23.5% YoY) 1월 수입물가지수(-1.9% MoM, 29.7% YoY) 미 1월 PPI(0.2% MoM, 9.7% YoY)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향 1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유 2월 ZEW 서베이 예상(49.4) 4Q 고용 QoQ(0.9%)/ 고용 YoY(2.1%) 일 12월 광공업생산 12월 설비가동률(8.0% MoM)	한 1월 실업률(3.8%) 미 1월 수출물가지수(-1.8% MoM, 14.7% YoY) 1월 수입물가지수(-0.2% MoM, 10.4% YoY) 1월 설비가동률(76.5%) 1월 제조업(SIC) 생산(-0.3%) 1월 광공업생산(-0.1% MoM) 중 1월 PPI(10.3% YoY) / CPI(1.5% YoY) 일 12월 3차 산업지수(0.4% MoM) 12월 전국 백화점 판매(8.8% YoY)	한 12월 통화공급 L(1.0%, MoM) 12월 통화공급 M2(1.1%, MoM) 미 1월 FOMC 회의록 공개 1월 주택착공지수(1.4% MoM) 1월 건축허가(9.1% MoM) 1월 NAHB 주택시장지수(83)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3.2) 유 12월 건설생산(-0.2% MoM, 0.5% YoY) 일 12월 역식기계수주(3.8% MoM, 11.6% YoY)	일 1월 전국 CPI(0.8% MoM)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미 1월 섀행지수(0.8%) 1월 기준주택매매(-4.6%, MoM)
20	21	22	23	24 韓 금융통화위원회	25	26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0%) 독 1월 PPI(5.0% MoM, 24.2% YoY)		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2월 FHFA 주택가격지수 4Q 주택가격구매지수 QoQ(4.2%) 일 1월 PPI 서비스(1.1% YoY) 독 2월 IFO 기업환망지수(95.7)	한 3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미 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독 3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	한 2월 BoK 7일 Repo 금리(1.25%) 1월 PPI(9.0%, YoY) 미 1월 시카고 연방 국기활동 지수 4Q GDP 물가지수 / GDP 연강화 QoQ 4Q 개인소비	미 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2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일 2월 도쿄 CPI 전년비	미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향 2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1월 PCE 디플레이터
27	28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